

“높이 싸움 우위”...페퍼스, 아시아쿼터 1순위 와일러 지명

195cm 장신에 강한 스파이크·블로킹 강점...리시브 효율 보완 필요
지난 시즌 GS칼텍스서 V리그 적응력·실력·상승 가능성 등 높게 평가

페퍼저축은행이 호주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스테파니 와일러(29·Stefanie Weiler·사진)를 품에 안았다.
최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2024~2025시즌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이 전체 1순위 지명권으로 스테파니 와일러를 선택했다.
창단 이후 하위권을 맴돌던 페퍼저축은행은 197cm 장위와 재계약 불발에 따른 높이 공백을 와일러를 투입해 채워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95cm의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 와일러는 강한 스파이크와 블로킹 능력이 강점이다.
와일러는 지난 시즌 GS칼텍스 아시아쿼터 선수

로 선발됐으나 부상으로 10경기 출전에 그쳤다. 와일러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코트 위에서 지젤 실바와 환상적인 듀오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준 바 있다.
다른 구단들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전력 보강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2순위로 태국의 타나차 쑉삭(Thanacha Sooksod)과 재계약하며 안정적인 체제 유지를 선택했다. 타나차는 지난 시즌 도로공사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며 공격 점유율에서 팀의 핵심 자원 역할을 해냈다.
3순위 IBK기업은행은 호주 출신 알리사 킨켈라(Alicia Kinkela)를 지명했다. 킨켈라는 193cm의



공격수다.
GS칼텍스는 흥국생명 소속으로 23~24시즌 활약했던 일본의 레이나 토코쿠(Reina Tokoku)를 지명했다.
5순위 흥국생명은 뉴질랜드의 아닐리스 피치

(Anilise Fitzi)와 재계약했고, 현대건설은 일본의 자스티스 야구치(Jasuteisu Yauchi), 정관장은 태국의 위파위 시통(Wipawee Srithong)을 선택했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높이 경쟁력 확보’를 와일러 영입 이유로 꼽았다.
장 감독은 “와일러는 195cm의 장신 선수다. 페퍼스의 높이를 올려서 공격적인 배구를 하는 것이 구상 방향”이라며 “다만 높이가 올라가면서 수비는 좋아지겠지만 리시브 효율이 완벽한 편은 아니다. 이 부분은 훈련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감독은 외국인 선수의 적응 정도도 분위기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장 감독은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팀에 잘 녹아드느냐가 중요하다. 그 선수들과 얼마나 잘 조화롭게 융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 (와일러의) 인성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이를 고려해 선택했다. 선수들간 소통이 잘 되고 팀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야 실력도 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러는 지난해 11월 GS칼텍스 소속으로 흥국 생명과 경기 도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와일러는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아 팀을 떠나게 됐다.
장 감독은 “지난해 말에 와일러가 부상을 입긴 했지만 (GS칼텍스에서 활동할 당시) V-리그에 적응하며 보여준 실력과 상승세에서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다.
와일러의 에이전시는 페퍼스 측에 회복을 마치고 5월부터 기본적인 방향 이동과 점프, 착지 등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러의 영입으로 인한 포지션 조정은 따로 이뤄지지 않을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졌잘싸”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6위로 시즌 마무리

〈졌지만 잘 싸웠다〉

대구시청에 22-25 패
“다음 시즌 선수 보강”

광주도시공사가 아쉬운 패배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시청과의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7차전 경기에서 22-25로 패했다. 시즌 최종전에서 패한 광주도시공사는 5승 2무 14패(승점 12), 6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청과의 앞선 맞대결에서 각각 26-25, 25-22 승리를 거뒀던 광주도시공사는 마지막 대결에서는 22-25로 패했다. 대구시청은 7경기 만에 승리를 더하면서 3승 2무 16패(승점 8), 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대구시청 정지인이 7m 드로로 첫 골을 가져갔다. 반격에 나선 광주도시공사가 3분 김수민의 골을 시작으로 서아루의 스틸과 속공으로 연속 골을 만들어 리드를 잡았다. 그리고 대구시청의 실책까지 나오면서 전반 5분에는 4-1로 앞서갔다.
하지만 연속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4-3으로 쫓겼고, 대구시청 정지인이 스틸에 이은 속공으로 4-4 동점을 만들었다. 김희진의 골까지 나오면서 광주도시공사가 4-5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광주도시공사의 서아루가 연달아 7m 드로에 성공하면서 9-9 동점을 만들었으나 대구시청 골키퍼 강은지의 연이은 세이브에 10-11, 1점 차이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초반 대구시청 이예운이 2분 퇴장을 받았지만 광주도시공사의 계속된 실책으로 11-15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후반 13분 13-19로 6골 차로 끌려가던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의 중거리 슛과 서아루와 김서진의 스틸에 이은 연속 속공으로 3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16-19로 다시 격차를 좁혔다.



광주도시공사 골키퍼 유정원이 11일 서울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 선방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골키퍼 유정원의 선방 뒤 김금정이 돌파 골을 넣어 경기 종료 7분여를 남기고 광주도시공사가 20-21으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대구시청 정지인의 9m 드로, 김예진의 속공으로 20-23이 됐다.
후반 26분 광주도시공사가 타이아웃을 요청했고 오세일 감독은 “저도 좋으니까, 인상 쓰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하자”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후 김지현이 연이은 돌파, 6m 골을 성공시켰지만 경기는 22-25 패배로 끝났다.
서아루가 10골, 김지현이 7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고 골키퍼 이민지와 유정원이 각각 4세이브씩 기록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오세일 감독은 “김지현이 저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발목이 안 좋은 상태고, 안지현 선수 역시 어

깨가 좋지 않다”며 “올해 박조은, 원선필 등이 떠나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 팀 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다. 공격수가 다치고 공격력이 떨어지다 보니 골을 많이 안 먹지만, 중요한 건 골을 못 넣는 것이다”라고 이번 시즌 아쉬운 성적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다음 시즌에는 선수들을 보강해서 조직력을 키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부산시설공단은 12일 경남개발공사를 28-24로 꺾고 4위를 탈환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여자부 정규리그 순위는 1위 SK 슈가글라이더즈, 2위 삼척시청, 3위 경남개발공사, 4위 부산시설공단으로 확정됐다.
/서울=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전남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 AI로 생중계

전남도가 13일 “오는 24일 개막하는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경기를 AI 기술을 적용해 중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회기간 중 열리는 농구경기를 AI를 적용해 중계 방송한다. AI 기술로 촬영된 경기 영

상은 네이비스포츠, 유튜브, OTT 어플에서 실시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AI 생중계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중 최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KT를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 경기장 실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보통

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에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이동통신 기지국 및 공개형 대용량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또한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기자망을 분리 구축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체전서 이 선수 주목하세요”

복싱 주태웅·육상 서옥연·씨름 김민재 등 전현직 국대 출사표

오는 18일 개막을 앞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전남체전)에 출전하는 다채로운 선수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전남체전에는 전·현직 국가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긴장감을 더한다.
현 국가대표로는 복싱의 주태웅(화순군)이 경기에 나선다. 전 국가대표로는 육상 서옥연(광양시), 수영 이지은(광양시), 소프트테니스 이경천(담양군), 배구 이소라(신안군)가 출전한다
이외 여자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수시), 씨름 김민재(이하 영암군 민속씨름단)와 차민수, 최성환도 참여한다.
올해 전남체전 최고령 참가자는 소프트 테니스 분야 김재곤(89·나주시)이다. 90을 앞둔 나이지만 올해도 라켓을 쥐고 코트를 누빈다.

최연소 선수로는 육상 포환·원반던지기 분야 이한울(16·영광군)이 출전해 전남체전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다.
2000년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전남체전에 출전한 선수도 눈에 띈다.
광양시 육상팀 김동욱(59)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4년 연속 전남체전에 출전해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한편 전남체전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장성 옐로우스타디움과 워라벨돔구장 등에서 개최된다. 22개 시·군 4605명의 선수들이 23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개회식은 18일 오후 4시 30분 장성 옐로우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94전 95기’ 김민주, KLPGA 투어 첫 우승

iM금융오픈 방신실·박주영 2위

김민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iM금융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김민주는 13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668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김민주는 공동 2위 방신실과 박주영을 3타 차로 제치고 KLPGA 정규 투어 95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2002년생 김민주는 2022년 정규 투어에 데뷔했으며 종전 최고 성적은 그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준우승이었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단독 5위였던 김민주는 조속 9m가 넘는 강풍이 코스에 몰아친 이날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며 선두로 뛰어올랐다.
특히 9번 홀(파5)에서는 티샷한 공이 코스 오른쪽 나무를 맞는 등 위기였으나 그린 주위 칩샷이 그대로 버디로 연결되는 행운이 따랐다.
10번 홀(파5)에서 약 5m 버디 퍼트를 넣고 1타차 단독 선두가 된 김민주는 방신실의 12번 홀(파4) 보기로 2타 차로 달아났다.
그러나 김민주는 17번 홀(파3)에서 3m 파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춰 서면서 다시 방신실과 격차가 1타로 좁혀졌다.
하지만 맨 마지막 조에서 경기한 방신실 역시



17번 홀에서 약 1.5m 파 퍼트를 놓쳐 추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한숨을 돌린 김민주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으로 보내며 1타를 줄여 2위와 3타 차를 만들고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3라운드까지 박주영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린 방신실은 이날 1번과 3번 홀 버디로 한때 3타차 단독 1위로 치고 나갔지만 이후 오히려 2타를 잃어 김민주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2, 3라운드에 연달아 공동 선두를 달렸던 방신실과 박주영은 12언더파 276타, 공동 2위가 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송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